

“한국불교 대승사상 실천 부족”

유승무교수, 전통 禪의 사회적기능 경시 비판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각 종교가 나아갈 길과 사회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다룬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의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종교와 사회적 기능’이 1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발표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불교의 선불교적 전통은 불교가 해야 할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경향을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불교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종교가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고 특정한 세계관과 사회관을 심어줌으로써 사회화의 기능 혹은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교는 불건전한 마음의 뿌리를 건전한 마음의 뿌리로 대체하고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과 현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내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했다. 둘째 종교가 사회통합적 기능과 동기부여기능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교사상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강한 성취동기를 심어줌으로써 개인의 목표달성노력에 기여하고 물질적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통해 사회완성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적극성 때론 훼손등 초래 사회적일으키기도

- 노치준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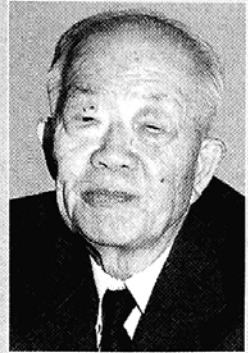
로 사회의 역동적 일부로서 종교는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갈등의 한축을 형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교는 태상적으로 계급사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상이며 한국불교의 경우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등 논리적으로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위상에 맞게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불교계가 종단 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5개 사항이 있다고 제안했다. 5개 사항은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해석과 불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학문적 패러다임 형성, 둘째 불교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출가수행자를 포함한 사부대중의 사회적 실천, 셋째 신도교육과 출가자 교육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 교육투자, 넷째 종단의 안정과 화합, 다섯째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불교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와 한국인 자신에게 대한 사회의 원리 제공 등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약해 온 부정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준 교수는 “한국 개

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종교인데 이 적극성이 때때로 타종교에 대한 갈등과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불상훼손사건이나 사찰 방화사건은 작게는 개신교인과 불교인의 갈등을 초래하지만 크게 본다면 한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내의 종교간 갈등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종교인은 개신교임을 볼 때 가족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한국 사회 전체 통합과 관련해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천도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고찰’-노태구 교수(경기대),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최병철 교수(청주대), ‘한국의 가톨릭과 사회적 기능’-박일영 교수(가톨릭대),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구득환 교수(대전대), ‘한국의 원불교와 사회적 기능’-이성진 교수(원광대) 등이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불교미술 외길 50년 후회없어”

황수영박사 회고 전집발간 발표회서

“저에게 한국불교미술의 세계를 열어준 은사인인 우현 고 유섭 선생의 장례 때 그분께 바친 추도사에서 ‘선생의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겠다’는 맹세 아닌 맹세를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옛 문화유적을 따라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경제학도로서의 회계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한국 불교미술 외길을 걸으며 끝까지 ‘황고집’을 꾸릴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세 때 경주 불국사에서 다보탑을 마주대했을 때 느꼈던 감동은 저로 하여금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신라미술 연구에 종사한 것을 한번도 후회하지 않게 했습니다.”

원로학자 황수영 박사(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전집 6권 완간을 기리기 위해 1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황수영 박사는 50년 넘게 걸어진 ‘불교미술 연구 반세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수제자인 정영호 교수(교원대)는 “불교문화재에 관한 일이라면 백리길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다니신 분이 바로 황 박사”라며 “황 박사는 은사인인 우현 선생 비를 대왕암이 보이는 동해에 건립하고 비 주변에 검은 옥돌을 깔아 놓았지요. 황 박사의 은사를 기리는 마음이 어찌 두터운지 돌이 없어질 때마다 돌을 사다 뿌린 것이 엄청났어요. 그런 정성 덕분에 이 비는 동해의 명물이 되었습니다”라며 황 박사의 불교미술에 대한 열정, 은사에 대한 존경심 등을 추양했다.

“원호스님의 중관철학 화해와 조화의 입장견지”

최유진교수 논문발표

“원호는 개개의 경전 모두가 부처의 진리이므로 옳다고 하는 화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관이나 유식에 대한 원호의 태도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우위에 놓지 않는다. <화쟁경소>의 교관에서 중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면 원호는 중관을 궁극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치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그 경전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원호의 진의가 아니다.”

한국종교학회 불교연구과(위원장 해수스님)가 개최한 제4차 월례발표회에서 ‘원호의 중관철학 이해’를 발표한 최유진 교수(경남대)는 “원호는 중관과 유식의 논쟁을 화해시키면서 공이나 유에 대한 집착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자체 집착이 없으면 진리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독특한 점이다. 원호는 그의 사상적 특징이랄 수 있는 화해와 조화의 입장 그리고 일심의 입장에서 중관철학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원호의 장애론’을 발표한 고영삼 강사(동국대)는 “<대승기신론>에 보이는 수행과 장애이론이 원호의 (이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원호는 부처의 관점에서 장애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과 성문·연가, 보살의 측면에서 번뇌를 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수행이란 자신의 깨달음 위치에 맞게 번뇌를 극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불교 특강·선수권회

동국대 경주 정각원, 일반인대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은 여름방학맞이 ‘선불교특강 및 선수권회’를 개최한다.

학생 뿐만 아니라 선불교와 선수행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선수권회는 단순한 참선수련만이 아닌 선불교에 대

한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1차는 7월12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정각원 법당 및 기숙사에서 80명이 동참할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선불교 특강은 선불교사상의 이해·선반야심경 강의·선사의 기원과 역사, 선의 풍토·선불교 개설·선수행의 의미와 목적·선조사선 목조선 강화선의 수행방법·선문화·선문학·좌선의 등으로 성본스님 이만 교수 등이 강의한다. 접수는 30일까지 정각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0651-770-2016)

학술단신

26일 보조사상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 연구’를 주제로 제21차 월례발표회를 법연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26일 오후2시30분에 개최한다. 발표는 이재현 박사(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가 한다.

중 절강성 불교유적 답사

동국대 동양전통문화연구원(회장 조영목)은 7월6일부터 14일까지 절강성 일대의 불교유적을 비롯한 한국관련 유적지를 답사한다.

절강대학한국연구소는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학술대회 ‘한중해상교섭과 불교교류’는 중국 보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국대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친 팻묵 황해탐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 중 하나이다. 중국 추산시는 출발지점에 기념당을 지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새로 팻묵을 제작하여 이불간 시승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중에 있다.

도올서원 ‘금강경’ 등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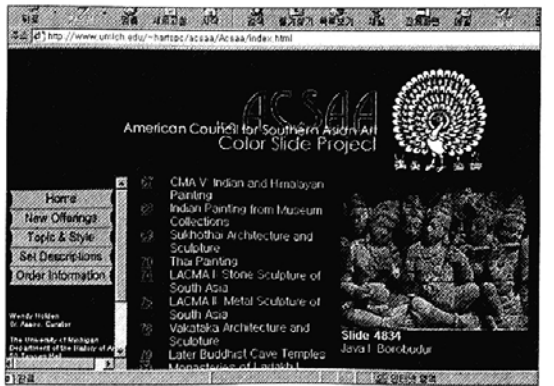
도올서원은 7월4일부터 30일까지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의 불경강의를 실시한다.

제별(齋別)활동으로는 화계사 1박·승산대선사 법문, 영불반, 산스크리트어 기초반, 원호의 <기신론소> 보독(補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독과 등이 있다. (02) 744-7992

‘단호문화연구’ 3집 발간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가 최근 <단호문화연구> 제3집을 발간했다.

3집에는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반상판 연구’(배진달), ‘금동선각열반반상판 소고’(이호관), ‘경설을 통해 본 불멸반상의 신앙 및 사상상·현존 동관열반도를 중심으로’(김영태) 등 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 미시간대 예술원

아시아 유물·유적 등 25년간 연구 불교예술·탱화 등 슬라이드 서비스

아시아 유물과 유적의 자료를 축적하고 보호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 미시간대학의 남아시아 예술연구소(소장 로빈스, 이하 ACSAA)는 아시아 유물과 유적 슬라이드 필름으로 담아내는 일을 25년간 계속해 온 연구소.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의 아시아 관련 박물관, 연구소, 학회에서는 아시아의 건축·조각·전적·그림 등의 유산을 사진자료로 축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CSAA는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곳이다.

ACSAA의 ‘아시아 유물 유적 슬라이드 프로젝트’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네팔·티베트·버마·태국·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산재한 고건축과 고예술품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내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ACSAA에서 구축한 사진 데이터는 총 1만5천여장.

이 사이트에서는 ACSAA의 데이터베이스를 △불교예술 △탱화·벽화 △스리랑카 예술 △히말라야 예술 △동남아시아 예술 △삼국 문화 △역사사료 등 12 분야로 분류, 슬라이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는 약 1천여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 메뉴는 ‘불교예술’, ‘탱화·벽화’, ‘역사사료’이다.

총 200여종의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하는 △불교예술 서비스에는 ‘아잔타 건축·벽화·조각’ ‘아시아 석조예술’ ‘티베트 라다크의 불교예술’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불자 네터즌이 △탱화·벽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리랑카·버마·미얀마·티베트·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한 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100여장의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한다. △역사사료 서비스는 이곳에서 제공하는 고건축과 고예술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한다. 유산에 대한 설명·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네터즌에게 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트리브랜드·샌프란시스코 등에 소장된 아시아 유물 특히 불교유물을 소개 받을 수 있는 것이 백미이다. 이 서비스는 160여종의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PDF’ 포맷이라는 국내에서 생소한 방식으로 작성된 이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에크로벳 리더(Acrobat Rea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슬라이드 자료는 ACSAA에서 제공한 ‘오더 폼(Order Form)’을 작성, 전송하면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와 교육에 사용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오더 폼’에는 인도초기 석굴사원, 아프가니스탄 초기 불교미술, 인도의 탱화, 일본 초기 사원 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세분화된 사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로빈스 교수(예술사)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우선하고 있지만 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재 밀반출을 사전에 막는 기능도 더불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http://www.umich.edu/~hartsp/acsaa/acsaa.html

도서 **지장사상** 출판 **지장사상** 전화 (051) 627-5498 팩스 (051) 623-3946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상벌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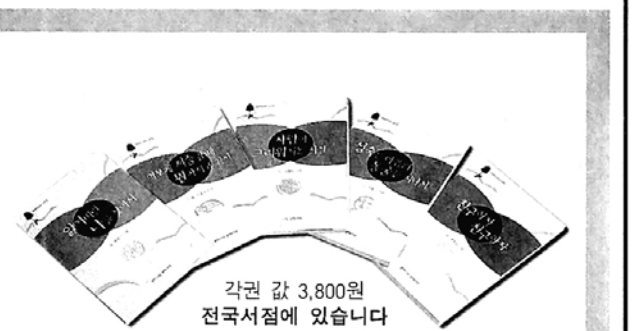
찬술/석용산 스님 · 엮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출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각찬계”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4×6배판 / 값 6,000원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 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② 여보게 저승갈 때 빌가지고 가지
- ③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 ④ 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 ⑤ 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